

# 병아리 키워 9조 원대 하림그룹 신화 창조 김홍국 회장의 “신기업가 정신”

## 한국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기업가 정신 회복

지난 7월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5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47년 전 병아리 10마리를 재미로 키운 것으로 시작해 지금의 하림그룹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연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김홍국 회장은 “한국 경제는 기업가 정신 되살리기에 달렸다”며 “인위적 규제, 차별 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생태계를 교란 키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차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기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작동되어야, 안정적인 경제생태계 안에서 좋은 일자리도 나오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다. 규제로 인해 도전을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이 소극적으로 변해간다. 요즘 기업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투자를 안한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불안해서 기피한다. 그래서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소멸시키는지 말씀드리려 한다.

###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를 보는 혜안

11살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주시면서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잡아먹지 않고 키워서 팔았다. 당시 병아리 한 마리가 10원 정도였는데, 이를 키워서 2,500원에 팔고, 다시 병아리를 사서 닭으로 키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3살 무렵에는 닭, 돼지, 염소를 키위 시골에서 수입이 괜찮은 꼬마사업가가 됐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종계 5천 마리를 키우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내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로 닭농장을 하게 됐다. 당시 익산 시내 단독주택이 300만원 정도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4천만원 정도의 돈을 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농장 규모가 커지면서 농산물 가격 등락이 커지다 보니 폭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돼지값이 폭락하는데도 소세지값은 안 떨어지는 것을 보고 '통합 경영'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닭, 돼지를 1차산물이 아니라 2차

'기업가 정신'이란 '정신'만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하기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혜안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보인다.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방해하는 것이 규제라고 생각한다. 세계

## 히든 챔피언의 심장도 기업가 정신

'Hidden Champions(2012)' by Herman Simon

독일 히든 챔피언에서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3개의 원과 8가지 요소



### 〈히든 챔피언은?〉

- ❖ 세계시장 Top3 이거나 대륙 1위 기업  
Top 3 in the world or no.1 on its continent
- ❖ 매출액 50억 유로 이하  
Revenue below \$5 billion
- ❖ 낮은 인지도  
Not well known in general public

### 야심찬 목표를 가진 강력한 리더십 (기업가 정신)

- 인물과 기업사명의 일치
- 목표에 매진하는 태도
- 대담성
- 활력과 인내력
- 영감을 풀어내는 능력

산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통합경영을 공부했고, 오늘날 하림그룹의 기반이 되는 식품산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현재 닭고기 가공, 사료 생산, 유통분야인 홈쇼핑도 하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닭고기를 가공 생산하는 사업장을 갖고 있고,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도 육가공 및 사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규모가 커졌다. 팬오션을 인수한 것은 돼지고기, 닭고기 사업의 기초가 곡물인데, 곡물 사업을 하려면 그 본질이 해운이다. 해운이 없으면 곡물사업의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세계적인 곡물기업은 사실상 벌크선 5척 이상을 갖고 있는 선박회사이다.

곡물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첫째가 육가공 사업의 기초가 곡물사업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6%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식량안보산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본은 50년 전부터 기반을 닦아서 자국 곡물의 65%를 자국기업이 해결하고 있다. 곡물사업이 곧 미래산업이라고 본 것이다.

### 적성에 맞는 일과 긍정적 사고

사업을 통해 몇 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오게 된 것은 지식이 많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적성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산 없이 자산규모 9조원 정도 되는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재미있고 창의적이 된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이다. 중학생 때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코르시카의 시골소년이 35살에 프랑스 황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1%의 가능성으로 99%의 부정적 요소를 물리치고 도전하는 나폴레옹을 보고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기회를 잡게 해주고, 부정적인 사고는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젊은 이들의 부정적 시각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정신이 있어야 한다. 나폴레옹처럼 긍정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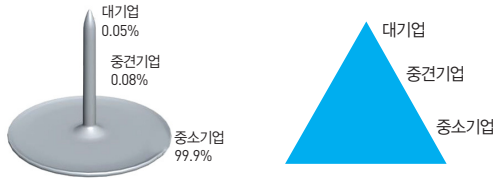
###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연속성에서 나온다

개개인의 DNA가 다르듯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부 자금을 지원해 준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지원은 1등이지만 그 효과는 반대이다. 국내 기업의 5년 생존율은

차별규제와 지원이 만든 사업체수의 기형적 분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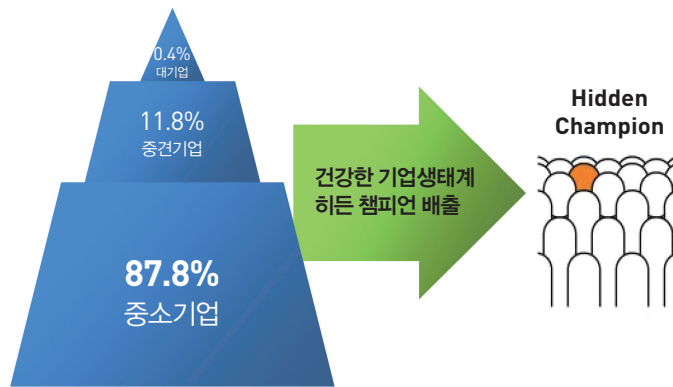
비정상적 기업분포(압정형)로 인한 구조적 참사(慘事)

대기업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중소기업수



- ❖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규모별 분포비중 : 대기업 0.05%, 중견기업 0.08%, 중소기업 99.9% (2012년 중기청 자료).
-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친 지원,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대기업수가 중소기업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경제력 집중현상 초래.

히든 챔피언의 나라 독일, 기업 분포구조 다르다



자료 : KOTRA, 주요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2013.1)

30% 정도이고, 음식점은 18% 정도라고 한다. 소상공인의 80%가 망해서 가게부채를 양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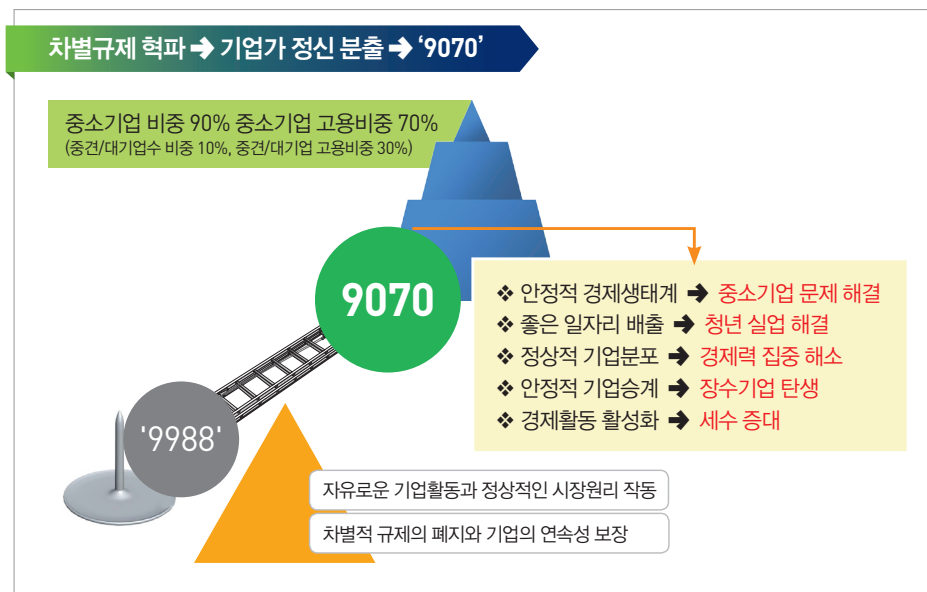
작년에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가 정신의 회복(47.4%)이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부진과 기업가 정신의 쇠퇴(41.4%)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세계 시장 TOP3이거나 대륙 1위 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평균업력이 70~100년이고, 당대가 아니라 3대에 걸쳐 이룬 기업이 많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연속성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당대에 끝나면 상속세 내고, 자녀들은 40% 정도를 나눠 갖고 끝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종업원 20인 이상의 기업을 7년

이상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상속세를 100% 면제받는다. 상속은 리스크와 경영철학, 경쟁력까지 상속되기 때문에 장수기업이 나오는 것이다. 독일에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 1,300개가 있다.

중소기업 차별화 지원이 우리나라 경제생태계 교란

규제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경제의 질서에 이성을 개입시킴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킨다.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난다, 대형유통업을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 분배중심의 규제정책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차별규제를 하면 그 의도와는 달리 상황은 계속 나빠질 뿐이다.



독일은 중견기업 이상이 12%인 반면, 우리나라는 0.2%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차별규제가 심해졌고, 기업가 정신은 쇠퇴했다. 세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데도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동맥이 0.2%이고, 실핏줄이 99.8%이다. 아무리 삼성, 현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국가 경제에 온기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동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핏줄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히든 챔피언의 나라 독일,  
대기업 0.4% 중견기업 11.8% 중소기업 87.8%**

혈액순환이 안되면 몸에 독소가 쌓인다. 여러 규제들로 인해 시장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중소기업의 출혈경쟁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분포를 보면 아주 비정상적이다. 히든 챔피언의 나라 독일은 대기업 0.4%, 중견기업 11.8%, 중소기업 87.8%로 허리가 튼튼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0.05%, 중견기업 0.08%, 중소기업 99.9%로 압정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농업 쪽에서의 차별 지원이 거꾸로 그들을 망하게 하고 경제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생각한다. 사람 몸으로 치면 독일은 대동맥이 12%인데 우리나라는 0.2%이다. 대동맥이 10% 정도까지 늘지 않는 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핏줄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실핏줄에 모터를 달아주는데, 그러다보니 계속 부작용만 늘고 있다.

**차별규제가 사라져야 기업가 정신 살아난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독일은 탄생여건만 조성해 준다. 히든 챔피언은 국가의 도움이 아니라 최고 수준을 통해 경쟁자를 물리침으로써 현재 그들이 보유한 시장 입지를 획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 챔피언들은 '국가의 은혜', 요컨대 국가의 영향력 행사와 자유경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간신히 살아남거나 시장주도자 위치에 올라선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경쟁이 아닌 국가의 보조를 통해 생존을 보장받는다. 국가의 도움으로 히든 챔피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시장의 최정상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은 매우 짧다. 보조금 지급과 경쟁에 개입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챔피언을 육성하려는 국가의 시도는 그릇된 방법이다. 국가가 지속적인 성공을 구가하는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결론은 차별규제가 사라져야 기업가 정신이 살아난다. 자연의 온도, 습도가 잘 맞으면 누가 키워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연히 잘 크다. **KAA** 이수지 기자 susie@kaa.or.kr